

- 녹취록 -

지방의원전문교육기관 시데프(CIDEFE)

발표 : 이브 헤미(Yves Hemy) CIDEFE운영대표

참관 : 리지안 알레자(Lysiane Alezard) CIDEFE교육총괄 일드프랑스의원

토론 : 김정희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비정규노동국장

정원식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의정국장

최 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조직국장

박미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 사무처장 전 경기도의원

사회 : 김민재 2009파리국제정책포럼 정책팀장

헤미 : 반갑다. 부디 자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웃음) 여러분에게 시데프(CIDEFE : Centre d'Information, de Documentation, d'Etude et de Formation des Elus)를 소개하겠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소개하겠다. 지난주 교육받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거의 암송하더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새롭게 소개하겠다. (웃음)

“어떻게 하면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더 부합되게 일할 수 있는가”

시데프 소개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다. 세계에 시데프 같은 교육기관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다. 수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공산당 의원들에게 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1930년대부터 공산당에서 의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됐고,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1970년대말부터 좌파의원들의 모임이 활성화됐다. 너무 자연스럽게 공산당 의원이든 아니든 시민을 위해 복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의원협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아네크(ANECR : Association Nationale des Elus Communistes & Républicains, 공산주의자공화주의자전국의원협회)가 만들어졌고 이중 절반이 공산당의원이었다. 현재 아네크에는 1만1000여명의 의원이 소속되어있다.

아네크에서 시민에게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공산주의자와 공화주의자 의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어떻게 하면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더 부합되게 일할 것인가를 토론해왔다. 바로 이 아네크가 시데프의 전신이자 모태다. 아네크가 만들어진지 30여년만에 아네크소속 의원들이 시데프를 만들었다.

의원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돼왔고 이런 내용의 법안이 1992년 통과됐다. 그 법안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바로 지방의원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교육예산 책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시데프의 활동이 많이 확산됐고 여기에 아네크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시데프의 활동영역이 지난 8년 동안만 3배 증가할 만큼 확장됐다. 시데프의 활동을 숫자로 다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150여개의 실습프로그램이 있고, 60여개 지부에서 진행되는 250여개 토론프로그램이 있다. 교육에 대한 요구와 갈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산됐다. 시데프의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실효성을 발휘하면서 명성을 얻게 됐고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 생산도 가능하게 됐다.

“의원들이 연대적 관점으로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

시데프는 의원간 정보교환과 소통을 중시한다. 물론 시데프교육강사로 대학교수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원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다. 시데프는 또한 새로운 도전을 중시한다. 프랑스정치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을 사안별로 생산하고 있다. 시데프는 의원의 기획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 반영하는 시민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시데프는 또한 인권권리 존중을 핵심관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생산한다. 시데프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중시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자원과 환경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코뮌(자치구)이나 데쁘뜨명(도), 헤지옹(광역도)에서 나아가 전세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니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웃음) 어쨌든 중요한 가치는 세계로 통한다. 시데프는 앞서 설명한 인권권리존중, 친환경적인 개발, 주민참여민주주의 등 중요한 가치를 기본으로 80여개의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다.

소통을 위한 기술적인 면도 교육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원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고, 논쟁에 대해선 어떠한 자세와 태도, 화법으로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선거나 중요한 일을 치른 다음에 교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이상적인 것이다. 시데프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서로 연대적 관점으로 소통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민재 : 잘 들었다. 박수 바란다. 우리는 참 농담에 인색한데 시데프를 통해 만난 지방의원들에게서 느낀 것은 참 유머가 있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헤미 역시 흥미롭고도 명료하게 시데프에 대한 설명을 잘해줬다. 자, 우리도 소통을 잘해봐야겠다. 질의응답과 토론을 시작하겠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

김정희 : 지난번 시데프교육에 참가했다. 지방의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혹시 출마자교육도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알레자 : 동료에게 설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제가 대신 답하겠다. (웃음) 물론 출마자교육도 진행한다. 지방의원들의 당선경험과 당선이후 활동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에는 선거재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재정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다. 그리고 한달후에 지방선거교육을 할 예정인데 진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연대적인 정책과 시민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주제로 한다. 이 기간동안 현직 의원들이 실행한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좀 더 실제적으로 진보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토론도 결합될 것이다.

헤미 : 의원은 지역시민들을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데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을 추구한다. 동료인 알레자와 나는 완벽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웃음)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고 반영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김민재 : 정말 우리에게도 시테프 같은 교육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 질문을 듣겠다.

“생산하고 조직하는 내용이 각 지역실정에 맞게 의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정원식 : 의원들의 소통과 연대에 시테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의원들의 연대는 공동의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정책실현의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알고 싶다.

헤미 :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시테프는 그동안 교육을 해오면서 작은 마을의 단 한명의 의원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시테프 교육프로그램중에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에서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교육받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한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회와 작은 마을에서 이러한 가치가 전달되고 실현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종국적으로 공동의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의원들이 서로 교류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 요즘 시테프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물론 의원들이 서로의 블로그를 통해 시민과 토론한 내용이나 의견을 즉각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시테프 없이도 의원간 교류와 연대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토론이 필요하다. 최근 사호코지의 지방자치개혁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토론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시테프가 생산하고 조직하는 내용이 각 지역실정에 맞게 의원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사호코지의 지방자치개혁법안의 ‘그랑파리’계획에 대해 파리 주변의 많은 소도시에 공산주의자 단체장들이 있다. 그들이 지역에서 ‘그랑파리’계획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 때 우리가 토론한 내용이 기본이 된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황금광산과 같은 풍부한 인적 자원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역할중 하나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

김민재 : 다음 질문을 듣겠다.

최민 : 다시 만나니 더 반갑다. 지방의원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한 법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 한국의 시테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테프와 같은 단체를 만들려면 법을 마련하고 재정방안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한국에서 시테프와 같은 단체를 만든다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 공회주의자 의원들이 함께하면서 마찰을 보일 때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이견을 조율해나가는지 궁금하다.

헤미 : 앞서 말했듯이 지방의원이 교육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프랑스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교육에 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공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법에 대한 수업은 하지 않겠다. (웃음)

이 법이 있기 전에도 공산당의 의원들은 많은 활동을 해왔다. 탁아소나 건강관리센터를 만드는 등 공공서비스

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계속 진행해왔다. 의원들의 이런 활동들이 확산되어 다른 지방에서도 실행되고 이런 성과들을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법에 기댄 활동보다 진보적인 생활정치를 일상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원교육이 의원에게도 정말 유용해야 하며, 교육을 잘 받은 의원의 활동으로 하여금 그곳에 사는 시민에게도 정말 유용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지방의원의 교육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것은 아니다. 우파뿐 아니라 좌파 의원들까지도 이 법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점이 없지 않다. 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단체장도 있다. 이에 대해 시데프가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런 단체장을 법정에 세워 이기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다. 즉 이런 법적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늘 투쟁해야 한다.

재정과 관련해 설명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교육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데프 재정의 80%가 여기서 마련된다. 재정과 관련해서 한가지 소개하면, 현재 유럽의회로부터 재정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알레자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는데, (웃음) 재정과 관련해 프랑스내무장관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과감한 행보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 역시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

의원들간의 의견마찰과 관련해서는 ‘인생은 흐르는 고요한 강과 같다는 의미의 영화제목이 있는데, 정치하는 곳이 조용히 흐르는 강과 같을 수 있나? (웃음) 더구나 정치인은 투쟁을 이끄는 사람이다.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개성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 역시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다. 즉, 이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서로간의 의견교환에는 세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상호존중이다. 시데프 건물에 들어설 때는 입구에 총을 놓고 들어가야 한다. (웃음) 둘째,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 즉 교환은 결국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한번의 의견교환으로 끝을 보는 것보다 자신의 견해를 더욱 풍부하게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고 그에 대한 깊은 사색을 이어가는 것이 더 이롭다고 본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본인의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적용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토론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 규칙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기초한 토론이다. 공통점에 토대해 토론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토대는 더욱 확장되고 공고해질 것이다.

아직까지는 의원들의 의견마찰로 죽은 사람이 없고 심하게 다친 사람도 없다. (웃음) 물론 의원들 간의 유치한 논쟁도 존재한다. 나의 동료인 알레자가 물어라하면 나는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웃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대립적이라 해도, 이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할 일상적인 삶이다.

김민재 : 매우 인상적인 답변이다. 지금 10분정도 시간이 남았다. 헤미는 뤼마니페슈제기간 코리아부스 바로 맞은편 부스에서 또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다.

“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시민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

박미진 : 어제 시데프 방문간담회에서 의원의 약 5%가 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전체의원의 5%이면 낮은 수치인데 의원들의 의지문제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재원확보에 비협조적이라 그런 건지 알고 싶다.

헤미 : 아주 간단히 설명하겠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프랑스의 지방의원들이 다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셋째, 특히 우파에 속한 의원들은 자신들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국회의원이든 작은 마을의 지방의원이든 직무기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시민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 넷째, 지방의원들은 의원으로만 활동하지 않는다. 다른 직장이 있고, 돌봐야 할 가족도 있다. 일을 하면서 의원활동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정적 관료주의로 인해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방의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체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 교육받고자 하는 의원에게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라 말하는 단체장도 있다.

김민재 : 지금 사실 헤미가 굉장히 바쁘다. 약속한 시간을 지켜줘야 한다. 튀마니떼축제준비와 관련한 회의가 헤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서 훌륭한 발제를 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큰 박수로 마치고 기록 하겠다. <끝>